

학생 손으로 만든 김장김치 덕진노인복지관에 기부

전북대 레지덴셜칼리지
프로그램 참여 학생

지난 30일 전주 덕진노인복지관에는 전북대 학생들과 어르신들이 갖 담은 김장김치를 두고 환한 웃음꽃을 피웠다.

전북대학교 레지덴셜칼리지(주거와 교육이 공존하는 생활관) 프로그램 참여 학생들이 그간 정성으로 재배한 배추로 김장을 해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기부한 것. 이날 나눔 행사에는 예코 분야에 참여하는 학생 10여 명이 복지관 어르신들을 위해 김장김치를 옮겼다.

학생들은 그간 식물자원을 통한 인성 교육과 건강 생활화를 도모하기 위해 박병모 생명자원융합학과 교수의 지도를 받아 다양한 작물을 재배해 왔다. 이번 가을에는 배추와 무를 재배해 11월 말부터 수확을 했다.

전주 덕진노인복지관 담당자 김성준씨(전주시 중화산동)는 "전북대 학생들이 직접 재배하고 체험을 통해 담은 김치를 어르신들에게 드리고 싶다는 제안이 뜻깊게 다가왔다"며 "학생들에게 정말 감사하



지난 30일 전북대학교 레지덴셜칼리지 프로그램 참여 학생들이 RC 예코플로어 활동을 통해 배추를 수확하고 김장김치를 전주 덕진노인복지관에 기부했다.

며, 기부 받은 김장김치를 통해 더욱 노인복지에 힘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레지덴셜칼리지 예코 플로어 소속 길나현 학생(원예학과 2학년)은 "직접 작물을 재배하면서 식물

과 자연의 중요성을 새삼 느끼고 있다"며 "RC 예코 플로어 활동을 통해 배추를 수확하고 김장김치를 복지관에 기부할 수 있어 기쁘다"고 전했다.

김성준씨는 "학생들이 직접 재배하고 체험을 통해 담은 김치를 어르신들에게 드리고 싶다는 제안이 뜻깊게 다가왔다"며 "학생들에게 정말 감사하

전북대 김세모 연구원, 항공우주시스템공학회 우수논문상 수상

전북대학교 김세모 연구원(로스알라모스연구소-전북대 한국공학연구소, 메카트로닉스공학과 석사과정·지도교수 강래형)이 최근 경주에서 열린 항공우주시스템공학회 학술발표대회에서 우수 발표논문상을 수상했다.

김 연구원은 '2D LiDAR 센서의 스캐닝 정확도 평가'라는 주제로 자율주행차량이나 드론에서 사용하는 공간 정보 취득 시스템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연구한 결과로 우수 평가를 받았다.

LiDAR(Light Detection And Ranging)란 레이저 펄스를 쏘고 반사되어 돌아오는 시간을 측정하여 반사체의 위치좌표를 측정하는 레이더 시스템을 말한다. 즉, 레이저 스캔을 통해 구조물의 형상을 측정하는 시스템이다.

김 연구원을 지도한 강래형 교수(로스알라모스연구소-전북대 한국공학연구소 소장)는 "일반적으로 LiDAR 센서는 통신이나 자율주행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지만, 추가적으로 비접촉식 비파괴 검사용 센서를 장착하면 공간정보 뿐 아니라 해당 지점의 결합 정보도 함께 추출이 가능하다"면서 "비파괴 검사의 전 과정을 자동화 하기 위한 시작점에서 다양한 연구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익산용성초, LA거주 동문 발전기금 쾌척

익산 용성초(교장 민완성)는 지난 11월 진도영 어린이가 드론 영재로 SBS TV '영재발굴단'에 출연한 이후, 미국 LA에서 거주하며 '영재발굴단'을 시청한 익명의 동문이 학교 발전기금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미국 LA에 거주하는 익명의 동문은 '본인과 아버지의 모교인 익산 용성초가 첨단항공교육인 '드론교육'으로 연이어 전국대회를 제패하고 있고, SBS TV의 '영재발굴단'에도 출연하게 된 것이 본인과 모교의 자랑이라고 생각하여 학생들에게 좋은 선물을 하고 싶다'고 발전기금을 보내왔다.

용성초등학교는 동문의 훌륭한 뜻을 받아, 겨울현장체험학습을 위해 전교생에게 고급 패딩점퍼를 구입했으며, 학교를 사랑하고 학교에 대한 긍지를 심어주기 위해 선배님께 감사의 편지쓰기, 감사의 현수막 만들기 등의 학교사랑 계기교육을 실시했다. 1학년 진설아 어린이는 '훌륭한 선배님께 감사드리고 나중에 선배님 같은 좋은 사람이 되겠다'고 편지를 써서 이메일로 선배님께 감사의 뜻을 전했다.

임실군, '2018년 숲가꾸기 체험행사' 가져

임실군(군수 심민)은 지난 29일 산계면 죽계리 세심자연휴양림에서 '2018년 숲가꾸기 체험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산림공무원과 산림조합 등 산림관련 분야 종사자 30여 명이 참석해 이팝나무, 편백나무 등 1,000여 주에 산지정화 활동을 벌였다.

군은 매년 11월을 '숲가꾸기 기간'으로 정하고, 심는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비료주기, 가지치기 등을 참여자가 직접 체험함으로써 숲가꾸기의 필요성 및 숲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군은 올해 18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1,300여 ha의 산림에 조림지꾸기, 어린나무꾸기, 큰나무꾸기 등 숲가꾸기 사업을 단계별로 관리하여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에 힘쓰고 있다.

박세민 산림공원과장은 "나무를 심는 것 이상으로 심은 나무를 꾸준히 가꾸는 것이 중요하다"며 "병해충, 산불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고 건강한 숲을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산남초 이슬 교사, 학교체육대상 수상

2018 학교체육대상(교육부 주최, 스포츠조선·한국교육과정평가원·학교체육중앙지원단 공동 주관, (주)위피코 후원)에서 군산남초등학교 이슬 교사가 '공부하는 학생선수 육성' 부문에 선정됐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은 학교체육대상은 한 해 동안 학교 체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학교, 교사, 단체에 시상한다.

이번에 수상한 이슬 교사는 군산남초등학교 야구부 학생선수들이 공부하는 학생선수가 될 수 있도록 부진아 지도, 학습 캠프, 영어 캠프 등을 추진했으며 학습권을 보장 받는 훈련을 지원했다.

또 운동부 운영회비를 학교에 편성하여 운영하고 각종 장학금 및 지원 사업에 신청, 선정되어 학부모 부담금을 축소하는 데 기여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상식을 통해 학교체육의 위상을 높이고, 활기차고 건강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앞으로 학생들이 학교체육을 통해 꿈과 용기를 키워나가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건강하게 바꾸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적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축사를 전했다.



전주교육지원청 '재미 풍풍·마음 쑥쑥' 진행

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항근) 위(Wee)센터가 주관하는 사회성향상 프로그램이 관내 30명의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지난 29일 덕진위(Wee)센터 세미나실에서 실시했다. 프로그램 주제는 '재미 풍풍·마음 쑥쑥'이다.



이번 사회성향상 프로그램 구성은 공동체놀이, 사회성증진, 또래관계 증진, 체험활동으로 성공경험하기 등 5개의 내용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사회성증진 프로그램은 집단활동으로 이루어졌으며, 학생들은 여러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문제해결 방법을 위한 생각, 행동, 생활양식 등을 탐색해 보는 기회가 되었다. 또한 또래 갈등에서 대처하는 방법, 나와 타인의 감정을 잘 느끼고 반응하는 방법을 경험하는 활동으로 내 안의 욕구를 들여다보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 사회성향상 프로그램에 참석한 김남준(가명) 학생은 "나를 알지 못하는 친구들이 선입견 없이 나를 대해줘서 좋았으며, 값진 체험활동의 기회를 줘서 감사하다"며 소감을 밝혔다.

전주교육지원청 이항근 교육장은 "사람은 자기 신념에 맞는 정보만 수용하고 자기가 믿고 싶은 정보만 믿는다. 앞으로도 전주교육지원청은 위기 학생에게 적합한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다양한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임실군 신덕면·성남시 야탑1동 주민자치위, 도농교류 활짝

임실군 신덕면(면장 이항기.위원장 최종연)은 자매결연을 맺은 성남시 분당구 야탑1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정영화)25여명이 신덕면을 찾아 본면 주민자치위원 25여명과 간담회를 통해 상호 교류의 장을 마련했다.

신덕면 위원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절임배추 및 농특산물 판매에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농가소득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어 감사함을 전하며 꾸준히 지속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했다.

전주매일 www.jimaeil.com 2018년 11월 29일 (월요일)
등록번호 전북가00016 (우)96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4층 (서노출동)

발행·편집인 조봉성 회장 김옥길 부회장 김승곤

• 대표전화 288-9700 • 업무국 FAX 288-9703 •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시 010-9845-4113	중앙지사 010-9388-6874	남원지사 632-3896	고창지사 563-6989
삼천지사 010-2333-4991	인후지사 246-6866	김제지사 547-8855	임실지사 010-9842-2725
서신지사 272-9417	순천지사 255-2404	완주지사 246-8855	진안지사 433-3084
요지지사 010-9845-9855	팔복지사 253-6984	남원지사 632-3896	정읍지사 538-3787
	군산지사 010-6789-0288	순창지사 653-0444	장수지사 010-3882-8157
	익산지사 659-9823	부안지사 010-2425-4182	무주지사 010-2300-4253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